

코로나 시대 '추석 풍경' 확 바뀐다

추석 차례 간소화 분위기... 수도권 거주자들 고향방문 감소, 명절연휴 양지공원 추모객 분산위해 사전예약제 검토중

8개월째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은 민족이 대이동하는 추석 명절 풍경도 확 바뀌고 있다. 모처럼 가족이 만나 왁자지껄하게 지내오던 추석이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며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자 올해만큼은 모이는 친척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간소하게 차례를 지내겠다는 이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제주에선 추석을 앞두고 음력 8월 1일을 전후한 시기에 집안마다 친척들이 모여 별초하는 풍습이 있는데, 올해는 다른지방에서 별초와 추석 명절을 지내기 위해 고향을 찾는 이들이 부쩍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12일 가족별초를 한다는 김모(제주시 아라동)씨는 "서울에 사는 사촌들이 별초와 명절 때마다 제주에 왔는데, 올해는 명절에 가족을

대표해서 1명씩만 오기로 했다"며 "조카들이 아직 어려서 걱정도 되고, 별초는 제주에 있는 친척들이 좀 더 고생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다른 김모(제주시 삼도1동)씨는 "이번 추석은 모든 친척집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차례를 지내지 말고 각자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며 "이런 얘기가 처음 거론됐을 때 일부 어르신들은 '안될 말'이라고 반대했는데, 제주에서 최근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별초와 추석에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별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예년보다 늘었고, 제주기점 항공기는 추석에 정기편 외에 추가로 특별기는 운항되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시 소재 한 협동조합은 최근 별초대행 서비스 신청을 마감하고 9일부터 별초를 시작했는데, 신청이 지난해 145기에서 올해는 178기로 22.8% 늘었다. 비용은 1기당 8만원을 기본으로 묘지가 위치한 거리와 산담 여부, 작업여건 등을 감안해 추가비용을 받고 있다. 다른 협동조합들도 대부분 별초 접수물량이 작년보다는 증가해 대부분 이번주부터 열흘정도 별초에 나서고 있다.

명절마다 한바탕 빛아졌던 제주기점 항공편 예약 전정도 올해는 많이 달라졌다. 항공사들은 몇 달 전부터 명절 항공편이 일제감지 마감될 만큼 승객수요가 넘쳐나며 특별기를 투입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특별기 투입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수요가 가장 몰리는 추석 전날인 9월 30일 제주 도착 항공편과 연휴 막바지인 3~4일 제주출발 예약률은 90%대 중반 정도고, 그 외의 날엔 여유가 있어 특별

기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도내 공공장례시설인 양지공원은 추석에 사전예약을 해야 봉안당 방문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기간 양지공원 제례실 폐쇄와 3곳의 봉안당에 대해 사전예약제 운영을 적극 검토중이다. 평소 하루평균 봉안당 이용객이 500명 정도에서 명절에는 하루 1만명까지 늘어났던 점을 감안해 밀접접촉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서다. 제주시는 자연장지인 한울누리공원 추모관 제례실을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폐쇄기로 결정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지공원 봉안당을 하루 몇 차례 사전예약제로 운영해 이용객을 분산시키고, 음식물 반입·섭취를 모두 금지할 방침"이라며 "3월부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수기로 출입명부도 작성중인데, 추석을 앞두고 QR코드(전자출입명부) 도입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도, 렌터카 증차거부 항소심도 패소 재판부 "특별법 시행 이전 증차 신청 거부해 위법"

렌터카 증차 불허 방침을 놓고 벌어진 제주도 행정당국과 업체 간의 법적 다툼에서 행정당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9일 제주스타렌탈과 이 회사의 계열사 1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 1곳은 지난 2018년 3월 19일 렌터카 161대를 증차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제주도가 마련한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지침'을 근거로 그해 4월말 증차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제주도가 긴급 지침 형태로 마련한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 계획'은

렌터카 차고지 면적 기준을 승용차 대당 13㎡에서 16㎡로, 소형 승합차의 경우 15㎡에서 18㎡로, 중형 승합차의 경우 23㎡에서 26㎡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법이 2018년 9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에 렌터카 업체가 무더기로 증차를 신청하자, 제주도는 제동을 걸기 위해 그해 3월 부랴부랴 강화된 지침을 만들었다.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당시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렌터카 취급 조절 권한을 신실한 제주특별법은 2018년 9월 21일 시행되는 데, 제주시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그해 4월 24일과 26일 증차 신청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가정집서 6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60대 남녀가 가정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14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한 단독주택 내 창고에서 A(63·여)씨와 B(63)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창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몸에서는 다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옆에서 목을 매 숨져 있었

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였다.

경찰은 두 사람이 다투던 중 B씨가 A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창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몸에서는 다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옆에서 목을 매 숨져 있었

현영준기자

방탄소년단 화보 투자 사기 의혹 50대 검거

제주지역 모 투자회사가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모 투자회사 대표 A(57)씨를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

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투자자 1명당 1억~2억원을 BTS 화보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이들이 투자한 원금은 30억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A씨가 실제로 BTS 화보 제작에 투자금을 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7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삼양2동 삼양교 북쪽 인근 도로에서 A(73)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 옆 담벼락을 들이 받

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상민기자

"추석연휴 환경오염 단속" 도, 특별감시활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9월 30일~10월 4일)를 전후해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농공단지, 공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대규모 폐수배출 시설과 민원발생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뤄진다.

도는 1단계로 연휴 전(9월 21일~9월 29일) 자율점검 유도 등 사전 홍보·계도를 먼저 실시한 뒤 오염취약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

이어 2단계로 연휴기간(9월 30일~10월 4일) 취약지역(농공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등)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도와 행정시별로 상황실을 운영한다.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 행위 신고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를 이용할 수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민주노동 전국집배노조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 지역 주민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협재우체국 폐국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희만기자

"주민 불편 가중되고 일자리 사라진다"

협재우체국 폐국 방침에 집배노조·지역민 반발

제주지방우정청이 협재우체국을 폐국해 은행 기능이 없는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려고 하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 전국집배노조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금능·용포·월령·월림·상명·명월마을회, 한림읍 이장단협의회 등은 9일

정무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재우체국 폐국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땅을 무상 기부해 마을 우체국을 만들었던 협재주민들은 그동안 마을기금을 최대한(우체국에) 예치해 우체국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청은 협재마을의 유일한 금융기관이자 월령리와 금능리, 용포리 주민 등

5000여명이 이용하는 우체국을 일방적으로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화되는 농어촌 마을에 협재우체국의 은행업무가 사라지면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제주지방우정청은 근본적인 대책에는 눈감은 채 우체국을 없애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달 경영 건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협재우체국과 서귀포 예래동우체국을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겠다고 공고했다. 우편취급국으로 전환되면 기존 우체국이 맡던 은행 업무는 사라진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고 고당도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강, 탐나는봉

가정원에(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나몬,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JE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병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포유수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